

투데이 칼럼

전북의 새로운 희망, 삼성의 첫 투자에 거는 기대

전북 서남권이 오랜 기다림 끝에 변화의 문턱에 섰다. 지난 10일 고창신활력산업 단지에서 열린 '고창 스마트 허브단지' 착공식은 삼성의 단순한 사업 개시가 아니었다. 그동안 전북이 갈망해 온 대규모 기업 투자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지역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그리고 삼성전자 박순철 부사장을 비롯해 1,000여 명의 도민이 함께했다. 지역과 기업, 행정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방증이다.

삼성전자가 총 3,500억 원을 투입해 18만㎡가 넘는 높은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북 서남권의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감지된다.

2027년 완공될 이 스마트 허브단지는 자율이동로봇과 자동보관·회수 시스템이 도입된 첨단 물류단지다.

물류 전 과정이 자동화·지능화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의 산업 기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설·장비·자재 등 지역 업체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 완공 후 조성될 5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 역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시 지역민에게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대감에는 한편의 아쉬움과 조심스러운 마음도 공존한다. 2011년 김완주 전 지사 시절, 삼성은 새만금에 7조 6천억 원 규모의 그린 에너지 종합 사업간지를 조성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풍력·태양전지·연료전지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면서 전북은 환영 현수막을 걸고 '삼성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사업은 끝내 이행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전북 도민이 느꼈던 허탈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대기업 투자가 유독 비껴가는 전북경제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삼성의 고향 투자 무산 이야기는 투자에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고향 전주에 공장을 세워 지역 경제를 돕고자 했지만, 당시

전주 지역 유림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일로 삼성은 다시는 고향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전해진다.

이런 배경은 전북 도민들이 삼성의 이번 전북에 대한 '첫 투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며, 전북 도민들은 삼성의 이번 투자에 많은 기대를 하고 환영한다.

전북은 지금도 대기업 투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길은 결국 기업과 전북 도민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간 많은 대기업이 전북을 스쳐 지나갔다. 대우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이 공장을 설립하고도 중도에 포기하여 전북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겼다.

삼성의 경우도 그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정도를 제외하면 생산 공장

하나 없는 현실은 도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만큼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고창 스마트 허브단지 착공은 바로 그 변화의 신호탄이다. 전북이 더 이상 기업 투자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도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 투자가 단순한 물류센터 건립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에너지·신산업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전북은 마침내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투자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갖는다. 전북은 그 기회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첫걸음에 머무르지 않는 삼성의 '두 번째, 세 번째 큰 걸음'이다.

기업의 결단 위에 지방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더해질 때,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전북 도민들은 이번 투자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전북을 향한 삼성의 진정한 귀환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번 착공식이 바로 그 미래를 여는 첫 관문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케데헌 '골든' 역주행

미국 대중 음악계 최고 권위를 지닌 '그라미 어워즈'(Grammy Awards) 본상 후보에 오른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OST '골든'(Golden)과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나란히 진입했다.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지난 주에 이어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다.

비연속 통산 10주째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하우 잇즈 던'(How It's Done)(11위),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13위) 등 '케데헌' OST 3곡이 20위 안에 들었다.

로제의 '아파트'는 85위에 위치하며 싱글 차트에 55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날 공개된 제68회 그라미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골든'을 비롯한 '케데헌' OST는 5개 부문, '아파트'는 3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본상(제너럴 필즈) '송 오브 더 이어' 부문에서 '골든'과 '아파트'가 모두 후보로 선정됐다. '아파트'는 또 다른 본상인 '베코드 오브 더 이어'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시상식에서 K팝 장르가 후보에 오른 것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이후 처음이다. '제너럴 필즈' 후보를 배출하고 K팝 여성 아티스트가 노미네이트 된 것 역시 사상 최초다.

이로써 '골든'은 비연속으로 통산 9주 동안 1위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스위프트의 '더 페이트 오브 오피시아(The Fate Of Opheia)'는 2위로 내려왔다.

노소영 이혼 소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37년 전 시집은 집에서 떠나게 됐다"며 이혼 확정 이후의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그때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적었다.

이어 "1961년생으로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며 "웃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단롭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

무엇보다 감사하단 생각이 든다. 따뜻한 쉼타도 몸을 덮어줄 오버코트도 포근한 목도리도, 그것을 만들어 내게까지 오게 한 사람들의 노고가 느껴진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넣는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또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올려서 붙이고, Happy Forever!!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라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 넣었다"고 적었다.

노 관장은 이 글과 함께 1988년 결혼식 당시 입은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한복, 그리고 웃가지 사진을 공개했다.

또 자녀들이 만든 도화지에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얼굴에 종이로 만든 턱시도와 드레스가 붙어 있고, 색색의 메시지 카드가 장식돼 있다.

노 관장은 글 말미에서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다시 쓰며,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듯한 심경을 전했다.

독자재언

고령자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을 행락철 및 수확철과 겹치며 일조가 짧아지고 야간 활동이 늘어나는 요즈음 교통사고는 더욱 증가할 위험이 높다.

최근 고창경찰서는 전북도내 고령자(운전자·보행자·이륜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 특별주의 기간을 운영하며 고령자 밀집 장소 순환 강화 및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회관 등 노인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홍보하여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이 이러한 홍보에 주력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관심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안전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교통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단횡단을 금하며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고, 야간보행시 밝은 옷을 착용하며 이륜차를 운전할 시 과속 및 음주운전을 절대 금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고령 보행자는 신체적·인지적 반응 속도가 젊은 층에 비해 늦어, 한번 사고가 나면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령자의 교통안전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교통사고가 적극 예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다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상젤리제 거리 조명 점등 관람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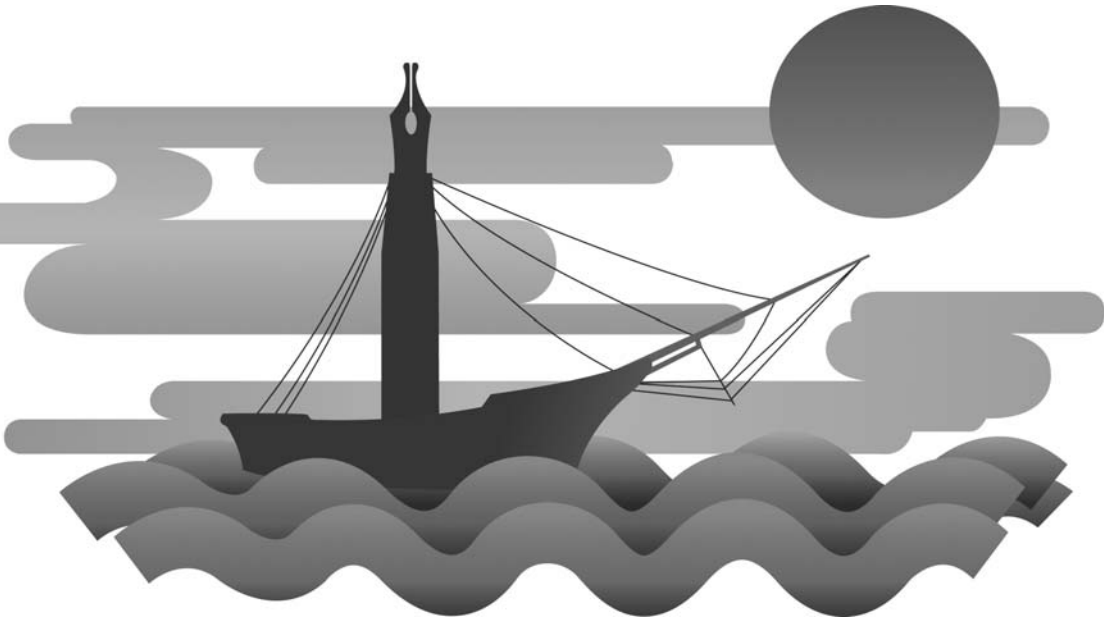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상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조명 점등식을 관람하고 있다. 겹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